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었다

9월 9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측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더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주석단과 주석단특별석에 등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료전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쉘바도르 안토니오 발테스 메사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제1부수상, 힐랄 알힐랄 아랍사회부총당 지역부비서, 왈렌치나 이와노브나 마트비엔코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총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단장들과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대표단 단장들, 특사, 인사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초대석에는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해외동포측하단, 대표단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여러 나라 대표단성원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순님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와 종합군악대의 시작례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한 열병부대를 사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고 보고드리었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승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력사의 광장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상을 모

신 초상기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서자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열병지휘관 김병남 특근상장의 지휘차를 선두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주체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과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총대와 해방 후 새 조국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해온 중앙보안간부훈련소총대, 38경비대총대가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드높이 광장에 들어섰다.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근위 제2어뢰정대, 근위 제56추격기련대의 열병총대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혁혁한 무훈을 아로새긴 군기들을 앞세우고 열병광장을 행진해갔다.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중대총대의 뒤를 이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조선인민군의 본래를 보여준 해군사령부 제1기지총대와 항공군총대, 환문점경무대총대, 제4군단아래 포병부대총대 그리고 조국의 대지우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운 근위 영웅1려단총대와 서해감문건설부대총대가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반제혁명의 최전선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와 자랑찬 승리전통을 떨친 해남도전선부대총대와 공군총대,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총대도 긍지높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전선군단총대들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총대에 이어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열병총대들이 위풍당당히 전진하였다.

각급 군사학교총대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총대들이 용기백배하여 경축의 광장을 활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주석단앞을 지나는 열병총대들에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인민군대의 강위력한 익측부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총대들이 불패의 전투력과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비행기들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상징한 《70》이라는 수자대형을 짓고 평양의 상공을 날았다.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백승의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갖춘 기계화중대들이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군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 2 면 으 로 계 속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도당위원장들,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넋과 필생의 념원이 어린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갈 애국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행진군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고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무를 뿌리며 열병식마감을 장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장엄한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강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역센 기상을 시위하며 공화국기폭대렬이 《빛나는 조국》, 《조국찬가》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물결쳐가고 《경축 9.9》라는 글발이 광장바닥에 새겨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개발대렬이 수령영생송가가 울려 퍼지는 광장으로 들어서자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꽃물결은 더욱 세차게 설레이었다.

수령의 위대성에 나라의 강성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새겨주며 경축의 광장에 태양의 존함들이 정중히 모셔지고 《경축 70》, 《주체》, 《일심단결》 등의 글발들이 펼쳐졌다.

공로자대렬, 군인가족대렬, 농업근로자대렬, 체육인대렬, 소년단체렬을 비롯한 시위대렬들이 《승리와 영광의

70년》, 《주체조선의 탄생》, 《장군님 지켜주신 행복넋집》, 《사회주의대 가정》, 《세상에 부럼없어라》, 《사회주의 한길로》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련이어 광장을 지나갔다.

시위참가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경쾌하고 우아한 춤물동에 담아 펼쳐놓았다.

가장물들과 프랑카드를 든 로동계급대렬, 과학자, 교원대렬이 용용히 흘러갔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대고조 폭풍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

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의지로 충만된 청년학생들이 웨치는 《청년강국》, 《결사옹위》의 합성은 광장을 진감하고 붉은기춤대렬의 박력있는 춤물동은 경축열기를 더해주었다.

조선지도와 《우리 민족끼리》, 《자유, 평화, 친선》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광장에 들어선 시위참가자들이 꽃다발과 통일기를 흔들며 광장을 활보하였다.

종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를 주악하며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

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으로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9일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변혁을 다계단으로 이룩하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기를 펼쳐가시는 회세의 천출위인을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자》를 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가 열리고있는 시기에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이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0년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무진막강한 국력, 양양한 전도를 가진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불면불휴의 령도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공화국을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었다.

사소한 로선상착오나 정치적공과도 모르고 곧바로 전진하여온 승리의 력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전변을 안아온 천지개벽의 력사,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정권건설의 시대적귀감을 마련하여온 창조적 력

사이라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70년 력사의 위대성이 있다.

그는 공화국의 력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주체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강화발전되어온 로정,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되어온 로정,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민족민단의 변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온 영웅적투쟁행로이라고 말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부흥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혁명적본래를 고수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대해같은 도량, 비범한 결단과 령활한 지략에 의하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이 이루어지고 특출한 정치실력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

의 위상이 만천하에 빛나게 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승리봉을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빛나는 조국》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9월 9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쳐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하여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되었다.

백두산의 억센 기상을 안고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처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상을 안고 《빛나는 조국》의 제명이 경기장의 밤하늘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가운데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서장 《해쑤는 백두산》과 《사회주의의 우리 집》, 《승리의 길》, 《태동하는 시대》, 《통일삼천리》, 《국제친선장》 등의 장으로 구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기적과 변영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할 혁명적업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백승의 한길로 승승장구해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건국위업을 완벽하게 실현하시어 이 땅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아름답고 우

아한 음악과 춤물동에 담았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와 함께 험난한 산밭들과 파도세찬 바다길로 이어진 위대한 선군장정의 영웅사시적행로를 보여주는 거대한 춤물결이 온 경기장에 파도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 로고가 깃들어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는 최정예혁명군대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당의 은정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고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화폭들이 련이어 흘렀다.

력사적인 4.27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거리의 강렬한 지향이 통일삼천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인류의 열망이 천선의 교향곡이 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무궁토록 번영할 김일성, 김정일조국의 래일이 있음을 환희로운 예술의 세계로 펼쳐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종장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네》로 절정을 이루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투쟁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특색있는 체조와 예술적형상으로 생신한 열정과 신비로움을 안겨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터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발전하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상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특별대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료전서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특별대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료전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습근평 총서기의 특별대표인 료전서위원장이 인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인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 양진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리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료전서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후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료전서위원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이 보내준 친서를 읽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료전서위원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표단을 최대로 중시하시며 특별하게 환대해주시고 국경절경축행사일정으로 그



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접견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습근평 총서기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료전서동지를 자신의 특별대표로 파견하고 당 및 정부대표단을 보내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동지 그리고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친선적인 림방에서 온 귀중한 동지들을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영접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커다란 기쁨과 긍지속에 맞는 가장 큰 국가명

절을 계기로 이루어진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특별대표인 료전서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날로 훌륭히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조종권을 다시한번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종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종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선택이고 절대불변의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이미 합의한대로 고위급래양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사소통을 긴밀히 하여 그 누가 건드릴수 없는 특수하고 견고한 조종관계를 보다 굳건하고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료전서위원장은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주시는 조종친선은 지역정세의 변화와 력사의 풍파를 이겨내고 오늘 두 당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더욱 두터운 관계로 승화되고있다 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조종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추동해나가기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림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료전서위원장과 조종 두 당, 두 나라 관계의 강화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식없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알렌차 이아노브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0돐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마트비엔코의장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장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기념촬영을 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마트비엔코의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 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보내온 러시아연방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전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마트비엔코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부전대통령과 러시아인민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와 친선적인 조선인민에

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귀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축행사에 로씨야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전대통령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하의 인사와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로씨야지도부가 공

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량방평의회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과 담화하시면서 반도와 지역정세에 대한 로씨야지도부의 의도와 림장을 청취하시고 정세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반도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기에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선대지도자들이 마련 해주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

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며 의회호상간 협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두 나라 최고지도부의 림장과 의지가 피력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트비엔코의장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류기간 출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공연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특별대표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료젠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9월 10일 환영공연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귀빈들을 환영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만수대에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동지께서 료젠서위원장을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리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뜻깊은 공연이 진행되는 만수대에술극장은 조종 두 나라 국기와 조종친선을 상징한 구호들과 장식물들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있었으며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에 대한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동지께서 극장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맞이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기념촬영을 하신 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료젠서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환호를 올리면서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예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료젠서위원장과 대표단의 주요성원들에게 녀성예술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께서 과견하신 중국의 귀빈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환영과 친선의 정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 녀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와 중국노래들인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강의 노래》, 녀성중창 《붉은기 펄펄》, 녀성4중창 《안녕하시라》, 녀성중창 《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사랑하네》, 녀성독창과 방창 《새 세계》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으며 중국 《조종친선은 영원하리라》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였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힘차게 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년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풍만하게 개화발전하고있는 조종친선의 불매성과 공고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연은 시종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 올라 장례를 진감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이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료젠서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예술인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저녁 습근평총서기의 특별대표인 료젠서위원장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료젠서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최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의 귀빈들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종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불멸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김정은원수님과 습근평주석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회석상에서 료젠서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진행



9월 10일 저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가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해불야회시작이 선언되자 《빛나는 조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야회장에는 공화국창건일을 경축하는 《9.9.》, 《경축 70》이라는 글발들이 새겨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신 무개차가 활활 타오르는 해불봉을 든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력사의 광장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청년학생들이 해불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기고 태양도형을 형성하였다.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해불에 담아 조선로동당마크, 공화국기도형과 《김정은시대》, 《최고령도자》, 《승리의 기치》 등의 글발을 펼쳐놓았다.

조선로동당을 따라 부강조국건설의 진군길을 걸은 청년대군의 역센 기상을 시위하며 《백전백승》의 글발이 빛나는 불의 대오가 용용히 흐르는 광장에 《항도자》 등의 글발과 조선로동당기, 붉은기가 새겨졌다.

해불대오들이 썩씩하고 썩인 대형변화로 《영웅조선》, 《일심단결》을 비롯한 글발을 새기며 행진해가고 주체의 기치높이 자력부강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보여주는 해불글발들과 주체사상탑봉화대, 당창건기념탑도형이 련이어 자태를 드러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어

갈 청년들의 혁명적신념이 만장약된 해불봉을 높이 추켜든 혁명학인대렬을 선두로 《최후승리》라는 글발을 새긴 대오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선율에 발걸음을 맞추어 부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야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붉은기를 펴 필 휘날리며 언제나 끝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내달려갈 영웅청년대군의 강한 기개를 안고 당마크를 중심으로 한 대형원도형을 펼쳤다.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이 드리는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원수님께 영광을!》이라는 대형해불글발로 승화되어 거세게 타오르고 경축의 축도가 터져올라 해불야회마감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본사기자

런시

#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아들의 노래

신 홍 국

조국을 어머니로 부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평범한 아들  
생일 일흔둘을 맞은 어머니에게  
금별의 영웅메달도 달아드리고싶고  
이 세상 진귀한 보물 다 드리고싶어라

하지만 그 모든것 바라지 아니하고  
뜻깊은 명절날조차 더 일찍 잠을 깨며  
친만자식 위해 마음쓰는 그 사랑앞에  
그대 제일기쁨이요 소원인  
자식들의 행복한 삶의 노래  
은 세상 다 듣게 내 자랑으로 부르노라

## 행복동 이야기

아름다운 거리와 광장에  
경축의 꽃물결 넘쳐흐르는  
어머니조국의 생일날  
넘어온 인생의 언덕 돌아보니  
가슴뭉클 어려오는 한 모습

그대의 은정짓든  
《빛의정》연필을 손에 쥐고  
우리 말을 배우던 소년  
술밭속 3층교사 음악실에서  
희망의 노래 펼쳐던 소조원

평범한 건설노동자의 아들이었지만  
출생중에 적힌 그 이름 석자로  
소년단야생소매 소년공전에도 가고  
철따라 새 교복도 받아안던  
그는 어제날의 나의 모습

조국이라는 크나큰 품에  
인민이란 이름으로 사는 내 삶이  
처음 시작된 그 기술 못 잊어라  
그때가 벉돌 한장 귀하던 빈터에서  
조국이 간난신고 일떠서던 전후여서

하지만 그 모든것 다 모른채  
짧은 바지 교복입고 목청껏 부르던  
그날의 노래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하  
거니  
—행복이 뭣이나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 행복은 우리...

아, 축복받은 이 땅에서 행복동이란 말  
우리 세대가 처음 받아안았어라  
모든것 너까지도 평온하지도 않았  
던 때  
우리를 그렇게 키워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  
내 세월가도 못 잊어 정녕 못 잊어...

## 평범한 이야기

류수같은 세월이 안겨주었는가  
요즘 우리 집에 꽃피어나네  
평양산원에 입원한 며느리  
떡돌같은 손자를 순산한 이야기  
돈 한푼 안들이고 산꽃이며  
미역국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

어허, 서른테전 그날이 떠오르네  
으리으리한 보석주단 밟고 나오는  
안해에게 꽃 한송이 안겨주고  
내 속스럽게 안아보던 첫 자식의 모습  
추억깊이 새겨주는 산원의 그 여름  
날이

그 산원태생이 오늘은 아버지 되었으니  
그대의 은혜이고 자란이 이 땅에 얼  
마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느 가정에나  
있는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  
그러나 깊어지는 생각은

그대 가장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  
거리와 마을의 불빛들 꺼지고  
동음뭇은 공장의 문 무겁게 닫힐 때  
산원의 불빛 꺼진적 있었던가  
보석박힌 저 홀의 큰문 닫진적 있었  
던가

우리 눈물속에 새겨안았어라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  
무상치료의 병원문만은 닫을수 없어  
그러도 마음쓰던 그대의 진정  
그대 펼쳐던 꿈같은 화폭들을

두메산골 세쌍둥이어머니 태우고  
구름속을 바삐 날던 직승기  
네거리의 차들을 모두 비켜세우며  
오늘도 달리는 산원의 구급차...  
정녕 이런 이야기 천이던가 만이던가

천만금우에 인민을 세워주는  
어머니사랑 더해만가는 이 땅에선  
날이 갈수록 평범하게만 이어지리라  
결코 평범할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남들에게 기억같은 이런 사본들이...

## 우리 집

넓은 베란다에 화분이 많아 《화분  
방》엔 어항들 보기 좋아 《금붕어  
집》  
외국출장 갔다는 친구 평방수를 묻는다  
그러네 알수가 없다  
대중 사람도 재어본 일도 없으니  
더우기 알아두어야 할 필요도 없었  
으니

부부방, 자식방, 서재, 전실 둘러보며

제별들도 와보면 부러워하겠단다  
이런 집값 열만지 아는가도 또 묻는다  
괜한 질문, 알수가 없다  
나라에서 그저 준 집이어서  
여래 돈 내고 집을 사본 일도 없으니

친구가 돌아간 저녁 생각도 깊다  
별천지인듯 무수한 불빛 빛내이는  
저 창경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  
거리...  
행복의 집 주인들은 알고있을가  
내 친구처럼 누가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자기 집 마련이 평생 꿈이래고  
누구나 말하는 자본세계에서  
뻘뻘지게 일하면 차려지던가  
평생 세방살이 벗어 못나는 그들  
우릴 보면 복속에 복을 모르는  
《량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하지만 어쩌랴 그런 《량심》에 산다  
그렇게 사는것이 의무이고 권리인듯  
오, 부러워하라 사람들이여  
이런 꿈같은 세상에서 인민이 산다  
누구나 안겨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의 궁전이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 계양

뜻깊은 명절의 아침 베란다에  
오각별 찬란한 기발을 띄운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운명인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띄운다

이 기발 끌어내리려 오락한 원수들  
입에 칼을 물고 얼마나 날뛰었던가  
그 광증 정의의 보검으로 쳐갈기신

조국의 창건자이며 수호자이신  
수령님과 장군님 한층 어려워온다

병진의 험난한 시간들을 달려  
세계정치 중심에 우뚝 선  
세계적인 전략학자의 최고사령관  
원수님 바치신 애국헌신의 낮과 밤  
불멸의 화곡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그때문인가 애국가 장송히 울릴 때면  
우리리 고마움에 가슴은 젖어두고  
창공에 날리는 공화국기발 우리를 때면  
불세출의 애국명장을 모시고사는 궁지  
만조의 바다처럼 가슴가득 차오른다

어떻게 살면 인간이 도리를 다하랴  
이제껏 배운 사랑과 그대 위업에  
이 심장 다 바쳐 행복할 맹세  
아, 이 아침 신념의 하늘가에  
내 엄숙히 계양하노라

## 젊어계시라

아름다운 희망의 아침을 열며  
열정의 등근해 솟아오를 때면  
생선은 환희속에  
불어오르는 격정속에  
내 간직하는 하나의 소원 있어라

오곡이 설레는 9월의 하늘아래  
인민의 이름을 품고 태어나  
그대는 언제나 아름다운 한 모습

인민을 보살피는 눈빛 흐린적 없고  
인민을 위한 발걸음 더진적 없어라

인간의 존엄을 증언하며  
기적의 기념비들 수풀처럼 세우고  
모두가 친형제로 사는 대가정에  
사랑의 빛을 내리고 내리며  
인민이 웃는 봄천지 가꾸준 은혜

남들처럼 평탄한 길 걸어왔던가  
걸음걸음 시련의 찬바람 불어쳐어도  
자력자강의 대들보 여척같이 세우며  
세계를 앞설갈 배짱을 안고  
만리마로 비약하는 내 조국

진정 백두산 천지의 맑은 물  
마를줄 모르는 생명으로 지녀서인가  
백두에 휘날리는 주체의 붉은기  
놀뛰는 심장으로 간직해서인가  
로쇠를 모르며 폭풍치는 청춘의 나라여

그이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인민의 존엄은 어느 높이에 닿았는가  
그이의 애국열정을 닮아 조국도 젊다  
마중가는 미래도 창창하고 아름답다  
  
오 만고공상의 조국사를 승리로 엮어준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원수님 모신 위대한 어머니조국이여  
영원무궁 아름다우시라 젊어계시라

# 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친 대정치축전

#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얼마전 공화국의 군대와 인  
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려사의  
돌풍을 과감히 헤치며 역세에 세워  
온 궁지와 보람을 안고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중앙  
보고대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성대히 진행되  
었다. 또한 청년학생들의 화백야  
회로 경축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  
되었다.  
이번 경축행사는 성스러운 70년  
의 려사를 통하여 승승장구하고 강  
화발전된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과  
절세영의 탁월한 령도따라 보다  
찬란한 미래에도 노도쳐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온 누리  
에 떨친 대정치축전이었다.  
이번 경축행사의 나날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  
게 뭉친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  
을 다시금 온 세상에 과시한 뜻깊  
은 나날들이었다.

자기 령도자와 존엄들은 국가  
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궁지를 안  
고 광장으로 달려나온 수도의 각  
계층 군중들이 주석단양을 지나  
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감동적  
인 화폭들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  
떤 제재에도 끄떡없이 신심드높  
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주체조선  
의 역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분출  
하고있는가를 보여준 려사의 화  
폭들이었다.  
적대세력들이 제재와 위협, 사  
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써도 빼  
앗지 못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  
민의 가슴속에 억년마위처럼 굳  
게 자리잡고있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고 믿음, 흠  
모이다. 그 흠모의 마음들이 터쳐  
올린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합성은 경축광장을 진강하  
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눈부  
신 장엄행진이 펼쳐진 5월1일경  
기장을 들었다놓았다.  
10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된 청년전위들의 화백야회 《영웅  
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는 조선로동당을 따라 부  
강조국건설의 진군길을 걸어온 청  
년대군의 역세 기상과 청년강국의  
위용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세계적  
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공화  
국의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과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총대와 그뒤를 이어 나아  
가는 조국방위군과 수호전, 사회  
주의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  
운 부대총대들,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게 주체적인 공격과 방어수  
단을 다 갖춘 전선군단총대들과  
해군, 항공 및 방공군총대, 로  
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총대들  
의 철의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화국의 군건설력사와 함께 자  
위적무력건설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게 돌려보았다.  
지심을 울리며 도도하게 흐르는  
기계화총대들의 장엄한 흐름은

그 누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령  
도, 령풍, 령해를 단 한치도 침범  
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단호  
히 짓고개버리고야말 인민군대의  
역세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의 나날  
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높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나날들이었다.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은 다른 나라들이 조선  
의 경축행사에 대표단을 보내지 못  
하도록 갖은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당, 국  
가 및 정부대표단들과 고위급인사  
들,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대표들  
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외  
국의 경축사절들이 평양에 찾아와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  
는 조선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  
누웠다.  
친선적인 름방인 중국에서는  
습근평 총화인민공화국 주석의 특  
별대표인 물전시 전국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출하는  
큰 규모의 당 및 정부대표단을 조

선에 파견하였다. 또한 모하메드  
울드 아브렐이지즈 모리마니이슬  
람공화국 대통령, 쉘바도르 안프  
니오 발레스 메사 쿠바공화국 국  
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제  
1부수상, 힐랄 알 힐랄 아랍사회  
부총당 지역부부서, 왈렌제나 이  
와노브나 마드비렌코 로씨야련방  
평의회 의장이 축하사절로 평양에  
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중국과 로씨야,  
라오스, 인디아, 캄보자 등 많은  
나라의 당,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어왔으며 여러 나라 당  
총비서들과 단체들, 인사들이 선물  
과 꽃바구니를 삼가 보내어왔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높은 국제  
적지위와 대외적인 영향력을 잘 보  
여주는것이다.  
만민이 우리리는 절세의 위인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군대와 인  
민이 일심단결하여 기세드높이 전  
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9월의 사변이 마련되기까지

9월이다.  
구수한 단일향기, 싱그러운  
파일향기가 질어가는 풍요한  
이 가을방에 려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누구나 격동과 환희에 넘  
쳐 흘러온 이해의 날과 달들을  
뒤세워보게 된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날과 달  
들은 온 겨레를 상상할수 없  
었던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거  
한 날이었고 온 세상에 거  
대한 충격을 준 격동의 순간  
순간들이었다. 지난해말까지  
만 해도 조선반도정세는 전쟁  
이 당장 터질수 있는 위협천만  
한 정세였다. 그러던 조선반  
도와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환  
의 국면이 마련되게 되고 9월  
의 뜻깊은 평양상봉이 마련되  
게 된 기적같은 현실의 기저에  
는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  
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려사적인 판문점수뇌  
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였으며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평  
화변영의 소중한 리정표를 안  
겨주시었다.  
조선반도에 민족적화해와 평  
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  
문점에서 또다시 려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해주시고  
세계적인 사변인 싱가포르조미  
수뇌상봉도 진행하시어 조선반  
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바  
라는 온 겨레와 세인을 크게  
고무해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미래를 앞당겨오  
는 사업에는 꺾릴과 역동도  
있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비  
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으로 역풍을 화해의 순풍으  
로 돌려놓으시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평화변영으로 옮겨가  
게 이어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기  
위하여 온 여름 삼복철강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려사적인 판문점수뇌  
70돐 경축행사준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고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  
한 오늘이 이 모든 성과들  
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  
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  
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  
를 계속 발전없이 곧바로 시  
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9월중 예정되었던 평양수뇌  
상봉과 관련한 일정과 의제들  
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고  
취하시어 민족간의 화해와  
친선분위기를 조성하시었다.  
정녕 민족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구  
상과 대담한 결단, 넓은 포용  
력, 뛰어난 외교지략을 떠나  
온 세계가 격찬하고 지지하는  
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흐름  
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흐름을  
확고하게 주도해나가신다고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지금 온 겨레는  
9월중에 평양에서  
올해에 세번째로  
되는 려사적인 북  
남수뇌상봉이 진  
행되는데 대대  
적 기쁨과 기대감을 표  
시하고있다.  
려사적인 판문  
점상봉이후 북과  
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고심하고 진  
지한 노력을 기울  
여 일정한 성과들  
을 이룩하였다.  
북남사이에서 다  
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  
어지고 줄어든 가  
중, 친척상봉이  
실현되었으며 북  
남군사회담과 공  
동련락사무소개  
실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  
서 기쁘고 다행스  
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국적인 북남관계를 바로  
잡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를 위한 의의있는 성과들

을 달성할수 있는것은 민  
족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온 결과  
이다.  
하기에 온 겨레는 평양  
수뇌회담을 앞두고 그 성  
공을 기원하며 반전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  
측본부, 《한국진보련  
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평양  
수뇌회담이 합의된대 데  
하여 적극 지지협력하  
면서 《정부》가 미국의 눈  
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결  
립체인 《보안법》을 철폐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해나갔다.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  
은 《북이 싱가포르북미  
수뇌회담후 적극적으로 선  
의적인 조지들을 취하지  
만 미국은 아무것도 한것  
이 없다.》고 강하게 비  
난하고있으며 6.15공동선  
언설문 남측위원회, 《한  
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  
롯한 통일운동 및 청년학  
생단체들은 《대북제재 해  
제없이 새로운 북미관계  
는 없다!》, 《총선전언  
없이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  
대가 없다!》 등의 구호를  
내놓고 미국의 대북제재조  
단과 종전선언채택을 요구  
하는 범국민시명운동을 벌  
리고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이 이 모든 성  
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  
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  
력 의 궤도에 들어선 북남  
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곧  
바로 이어나가려하는것은 공  
화국의 일관한 름장이며  
의지이다.  
9월중 예정되었던 평  
양수뇌회담은 판문점선  
언리행을 가속화하여 북  
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  
룩해나가는데서 획기적  
인 계기를 열어놓게 될  
것이다.  
온 겨레는 반동일적인  
모든 도전을 슬기롭게 국  
부하며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려는 조선민족의 굳센  
의지를 만방에 더 높이 떨  
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 내 조국의 밝은 래일을 보았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  
아안았다.  
이번 경축행사는 한마디로  
《윤기이고 희망이다.》 이  
렇게 표현하고싶다.  
이 지구상에 200여개나 되  
는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  
족들이 있지만 이렇듯 규모  
가 크고 제인 행사는 오직  
조국에서만 할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내가 제일 감동  
한것은 대집단체조와 예  
술공연 《빛나는 조국》  
이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만드신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지도력 그리고  
우리 민족앞에 펼쳐지게 될  
밝은 래일을 예술적화곡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공연이었다  
고 생각한다.  
그 많은 출연자들이 단 한  
 재미동포 윤영기



이번에 재중동포의 한 사람  
으로 우리 조국의 창건 70돐  
을 성대히 경축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남다른 영광을 지  
니었다.  
9월 9일 김일성광장을 짝  
메우며 지나가는 열병식에  
군중시위대렬들을 보면서 자  
꾸만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지난날 총 한자루 변변한  
것이 없어 바다건너 오랑캐  
들에게 국권을 통째로 빼앗  
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  
이 오늘에 막강한 군력을 마  
음껏 시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령도자를 우리리 목청  
껏 만세를 부르며 뜨거운 눈  
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의 대  
오속에 나도 막 뛰어들고싶  
은 심정이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경축사절들이 오고 또 많  
은 해외동포들이 함께 모여  
경축한 이 자리아말로 존엄  
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궁지와 자부심을 이 가슴에  
한가득 채워준 뜻깊은 자리  
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날에  
날마다 비약해가는 조국의  
감동적인 현실을 보면서 몸  
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어  
머니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조국과 슬결을 함  
께 해나갈것이고 조국의 화  
일과 부강발전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갈것이다.  
재중동포 한선녀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나라

공화국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그날로부터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한생과도 맞먹는 이 70년기간에 공화국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백여년전 우리 민족이 세계에 우뚝 솟아 빛나는 오늘을 조선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역사에서 500여년간 존재해온 조선봉건 왕조는 사대와 외세의존에만 매달리고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제국을 키움님을 안하였다. 그러다나니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지고 변변한 자기의 군대조차 가지지 못하여 나중에는 대포를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항거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즐지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것이다.

일찌기 그 문명을 자랑하던 동방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수천만 우리 겨레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다. 민족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말과 글, 이름 석자까지 빼앗긴채 인과하의 학대와 굴욕을 당하며 마가을 락염처럼,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아야 했다.

그러던 우리 민족, 지구상에서 이름마저 빛을 잃었던 조선이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가.

오늘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은 자주적이고 존엄있는 삶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자주와 존엄, 인민중심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지난 70년사는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 나라도 위대해지고 인민이 존엄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진리로서 보여주어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우리 겨레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건국의 어머니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인민이 주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안아오시였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영웅의 나라로 자랑떨칠수 있는것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재더미우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공화국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라틴으로 건설하신분도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이인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인민을 위해 사색하시고 밤을 지새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들이 다 문 얼마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이께서는 난그럴수가 없다고, 우리가 예를 쓰고 힘을 넣는것만큼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것을 보면 정말사는 보람이 있고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이 딱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그이상 행복이 없다고, 말하러만 그렇게 하는것이 나에게는 더없는 보람이고 락이라고 교시하곤 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수령님이시였기에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고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걸음없이 이어가셨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위대한 신념의 마지막박동까지 바치시였다.

인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궁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높이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들이 다라고 가슴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셔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대국상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면서 공화국의 근대와 인행렬차를 타고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걸음없이 이어가셨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위대한 신념의 마지막박동까지 바치시였다.

이 엄숙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리고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을 끝없게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공화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조국은 곧 사랑하는 인민이였고 인민을 위한 일

은 곧 그이의 애국이었다.

지금도 이 땅의 남녀로소가 뜨거운 격정에 넘쳐 청송하고있고 바와 같이 펼쳐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다 합치면 오직 인민뿐이다.

노보라강행군길, 삼복철강행군길, 초강도강행군길, 심야강행군길...

장군님 헤쳐가신 그 길이 없었던 사회주의조국도 인민도 없었을것이라는 만사람의 토론은 실로 당연한것이다.

민족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 길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지만 자신께서는 현시찰을 단위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현시찰을 명에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오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눈보라 만리길, 헌신의 천만리길을



공화국의 인민의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

지금 이 땅의 천만군민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에서 값있는 삶을 누려가는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지난 70년동안 가장 값있는 삶을 누려왔다. 이 나라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 내 나라, 내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고 공화국의 품보다 더 은혜로운 품이 없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그 지위와 역할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근로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온갖 권리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만 비상이 높아지게 된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에서 각급 주권기관들은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나라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모든 국가활동이 진행되어나가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높은 긍지를 안고 살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삶을 빛내여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는것을 의리로 여기고있다.

공화국은 인민들에게 교상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다.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사회주의조국을 어머니 품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어머니 품, 이 말속에는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공화국에 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이 비껴있다. 공화국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병이 나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배정해주고있다. 참정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최근에 현대문명의 높이에서 번듯하게 일떠선 새 거리들의 살림집주인들도 모두 과학자, 교육자를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들이다.

공화국이 인민들에게 실시하는 인민적시책들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온 나라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무상치료

제 존엄한 전회의 날에 실시되었고 모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 제도는 1950년대말부터 실시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철폐되어 인민들이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며 살고있다. 이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의 문화후생터들이 계속 늘어났고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 연이어 솟아났다.

공화국이 오래전부터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해오고있는것은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물질적부가 많아서도 아니다.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맘미암아 이 땅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가시진 때가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도 승고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즐거이 이어져온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일관한 활동원칙으로 내세웠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국가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초구가 되도록 세상에 돌도 없는 훌륭한 제도를 세워주신 회세의 정치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 없고 흉내낼수 없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들은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공화국은 강력한 굳결으로 인민의 보람찬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여주는 인민의 영원한 보금자리이다.

불패의 굳결우에 인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자면 믿을 직한 자위적국방력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국방력을 역적같이 다져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는것은 인민의 민족적증거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품으로 살며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성실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지금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나의 나라 땅에서 살아보아야 조국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자기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사무치게 느낄수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목이 메고 눈물이 젖어들곤 한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지 배보다 못하다고 땅의 세월 나의 부모들은 살길을 찾지 못해 고향을 떠나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현해탄을 건넜다.

나라를 빼앗긴 탓에 갖은 민족적멸망과 천대를 받으며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한 부모님들이기에 해방후 공화국이 창건되자 조선사람의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고나섰다.

일본땅에서 태어난 나에게 있어서 철없는 시절에는 조국이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것이였다. 나의 선조들이 태를 묻은 곳, 살길 찾아 부모들이 떠나온 바다건너 그곳이 그때 나에게 안겨오는 조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차츰 성장하면서 나는 진정한 조국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도 이틀난 예술가도 되고싶었다. 특히 어린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밝혀내는 과학자가 되고싶은 꿈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도저히 이룰수 없는것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일본영의 현실이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조국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일본 땅에서도 조선학교를 다니며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었다.

도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날,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가고 물었다.

사실 나의 마음은 누구나 돈 한푼 안 들고 마음껏 배우며 꿈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나는 나라 땅에서 살아보아야 조국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자기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사무치게 느낄수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목이 메고 눈물이 젖어들곤 한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지 배보다 못하다고 땅의 세월 나의 부모들은 살길을 찾지 못해 고향을 떠나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현해탄을 건넜다.

나라를 빼앗긴 탓에 갖은 민족적멸망과 천대를 받으며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한 부모님들이기에 해방후 공화국이 창건되자 조선사람의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고나섰다.

일본땅에서 태어난 나에게 있어서 철없는 시절에는 조국이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것이였다. 나의 선조들이 태를 묻은 곳, 살길 찾아 부모들이 떠나온 바다건너 그곳이 그때 나에게 안겨오는 조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차츰 성장하면서 나는 진정한 조국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도 이틀난 예술가도 되고싶었다. 특히 어린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밝혀내는 과학자가 되고싶은 꿈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도저히 이룰수 없는것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일본영의 현실이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조국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일본 땅에서도 조선학교를 다니며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었다.

도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날,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가고 물었다.

구사로 일하면서 어머니조국의 고평악에 더 많은 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에 전념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근 40년이 되어오는 나날 나는 인민생활향상에 큰 의의를 가지는 식용기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었다. 뿐만아

가사로 일하면서 어머니조국의 고평악에 더 많은 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에 전념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근 40년이 되어오는 나날 나는 인민생활향상에 큰 의의를 가지는 식용기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었다. 뿐만아

구사로 일하면서 어머니조국의 고평악에 더 많은 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에 전념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근 40년이 되어오는 나날 나는 인민생활향상에 큰 의의를 가지는 식용기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었다. 뿐만아

구사로 일하면서 어머니조국의 고평악에 더 많은 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에 전념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근 40년이 되어오는 나날 나는 인민생활향상에 큰 의의를 가지는 식용기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었다. 뿐만아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강국화, 인제강국화사상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 평도적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강국화, 인제강국화사상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 평도적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강국화, 인제강국화사상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 평도적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강국화, 인제강국화사상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 평도적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강국화, 인제강국화사상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 평도적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에 계속 역행한다면...

관문점에서 진행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발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를 비롯한 경이적인 사변들과 대축적으로 세상을 놀래게 한 조선에 또다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이제 진행되는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의 성과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의 마음들이 조선으로 향하고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통일과 변명,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안아오는데서 새로운 사변으로 기록될 평양에서의 북남수뇌상봉에 대해 임부리를 함부로 놀리며 제동을 거는 세력들이 있다.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대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색깔론》이 비껴있고 내뻛는 말마타마다에서는 고의적인 적대감이 배어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를 비롯한 극우보수정객들은 남측특사대표단의 평양행렬을 《빈손방문》이니, 《우려》니 하며 시비질했는가 하면 반공화국대결광으로 악명을 떨친 라경원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악담도 서슴지 않으며 《정부》에 일장 《훈시》를 해대기도 하였다.

관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그 무슨 《엄청난 재정부담》, 《국민적합의》를 운운하면서 《북에 돈을 갖다주는것으로 평화가 구축되는가》, 《〈한〉 미동맹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고 악의를 드러냈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그 무슨 《지지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교묘하게 늘어대며 끝내 성사되지 못하게 하였다.

제버터 개 하지 못한다고 동족이라던 한사교 색안경을 끼고 적의로 대하며 친미사대를 생존의 동아줄로 여는 남조선보수세력의 유전적악습은 불치의 종양인것 같다.

올해에만 보아도 북남관계가 화해의 물결을 타고 급진전하는데 대해 사사건건 뒤다리를 잡아당기며 못되게 놀아냈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등장한 북과 남의 단일팀과 단일기를 두고 《북에 상냥한것》이라 횡설수설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단일팀구성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고 공화국의 민족애적인 노력과 성의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진대 대해 《위장평화》라고 고아낸 극우보수세력이다.

평화의 새시대, 력사의 새출발을 알린 관문점선언을 두고서는 《어찌구워없는 선언》, 《나라를 통째로 북에 넘기겠다는가》고 악담을 쏘치기도 하였다.

물건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과연 조선사람이 옳진 않은가.

민족의 대의를 논하는데 무엇때문에 황당한 사실이며 나라의 통일과 북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는데 무슨 해피한 구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것이다.

이미 공화국은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여야당을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오늘의 북남관계현실은 만나면 알길이 보이고 손을 잡으면 험난한 려정도 쉽다는것을 웅변해준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를 깨 명지놓은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에게도 한쪽각의 민족적잠심이 남아있다면 이 제라도 평화화해와 단합을 위한 려정도 쉽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파렴치한 간섭

지난 5일 남조선의 청년민중당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렬차 가로막는 미국의 주권침해를 규탄한다.》고 성토했었다. 이들은 《남북철도가 련결되는것은 〈한〉 반도평화의 상징이자 시작》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통일렬차와 교양으로 가고 유럽 려행을 가려는 청년학생들의 꿈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8월말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북남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있는 개성—신의주사이 철도실패공동조사에 참가할 남측인원들과 기관차, 차량의 군사분계선준공과를 가로막아 북남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사실이 전해지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총연리행이 아니라 군사적대결각본의 실행에 나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움직임이 계속 강행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충돌위험은 언젠가도 해소될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례의 지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북남관계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빗장을 지르는 비렬한것을 계속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부는 남측특사단의 공화국방문을 두고 《북남관계진척이 비렬화와 보수를 맞아야 한다.》고 오버 베히워진 소리를 했는가 하면 조선선언체재문제에 대한 미국의 립장을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다른것보다 비렬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있다. 그것이 우리 정책이다.》고 횡설수설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현재 북미관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것은 비렬화문제에 아니라 미국이 북에 약속한것을 리행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인테러단체인 VOX는 싱가포르 북미수뇌회담에서 트럼프가 조선선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오히려 미국은 최순에 대해 북측대사정체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있고 미국인문제도 부러행금지 1년이나 더 연장하였으며 정부승인을 받고 리행할 거대라도 〈유사〉를 작성하고 가야한다고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현실은 반공화국제체 증진을 더욱 강화하면서 조선선언체재를 거부

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망명을 짓부서버리는것이 옳어내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정부〉는 민족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주민들을 돌려보내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결집법인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단체들도 《대북제재 해제없이 새로운 북미관계는 없다!》, 《조선선언없이 평화변명의 새로운 시대가 없다!》 등의 구호를 내들고 미국의 《대북제재》중단과 조선선언체재를 요구하는 《범국민시명운동》을 벌이고있다.

력사적인 관문점선언이 천명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외세의 비렬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나아가갈 때 평화변명과 통일의 아침이 오게 될것이라는것을 현실은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력사적인 관문점선언체재 이후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협종식과 평화변명, 화해를 바라는 겨례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군부세력은 겨례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배치되는 구태의연한 대결움직임을 계속 보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경기도 포천인대에서 어느 한 훈련장에서 《방위산업전》의 미명하에 《대규모동화력시범》놀음을 벌여놓았다.

이번 훈련은 《K-9》차량과 탱크, 장갑차 등 기계화병력과 대형공격용 직송기가 동원되어 공화국을 가정한 목표물에 사격을 해대면서 광란적으로 감행되었다.

또한 11일부터 13일까지 《륙군동원전력사령부》의 주관하에 륵군 66동원사단

이 《쌍룡》훈련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사단소속 수천명의 병력과 륵군 5군단이 대항군으로 참가하였으며 물자보급과 호송훈련, 예비군동원과 실사격훈련들

레적으로 벌려온 전형적인 북침전쟁연습이다. 훈련을 주관한 《륙군동원전력사령부》도 평상시 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게 하고있다가 전쟁이 일어

에는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들의우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는 북남관계가 개

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관문점선언리행이 아니라 군사적대결각본의 실행에 나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움직임이 계속 강행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충돌위험은 언젠가도 해소될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례의 지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 한시바빠 매조되어야 할 정치오물들

최근에는 벌이 다르기마련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퇴물수수 및 국고손실》, 《직권람용 및 권리행사사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6가지의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명박에 대한 1심결정공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4월 리명박이 정식 기소된 때로부터 다섯달만에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도가 1992년 12월 2007년 12월 당시를 실제 소유한 상태에서 비밀자금 3 292만US\$를 조성하고 축소신고를 통해 법원인 296만US\$를 내지 않았으며 《대통령》 재직기간 정보원특수활동비를 비롯하여 1 037만US\$의 퇴물을 받아 먹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리명박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커녕 진실은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리명박이 다스화사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것은 《대통령》 당선후호로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중한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검찰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리명박이 제가 지은 죄값을 툭툭히 받은셈이다.

그런데도 역도는 최종선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횡간적도 없고 공직을 리용해 사적리익을 취한적도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렴결백》을 떠들었다. 지어는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로 몰아대며 처벌과 처벌이 아님다.

낮가죽이 폭발보다 더 두려운 리명박이만이 할수 있는 꼴불견이다.

하기에 남조선 정계와 사회 각계층은 리명박의 파렴치한 추태에 격분을 표시하며 《다스의 소유부리 (대통령) 재임시절 벌였던 부정부패행위까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생각하면 20년은 반성하기에 모자란 시간일것》이라며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나왔다. 국정문단의 싹을 억압하는 리명박에게 결말은 형을 내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검찰이 리명박에게 구형한 징역 20년형은 기소된 16가지 범죄혐의를 고려해볼 때 법적으로 적절하게 내

린 구형이라고 하면서 역도역시 박근혜처럼 감옥구신이 될수밖에 없다고 평하고있다.

가관은 리명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호두둔 놀음이다.

그런데도 역도는 최종선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횡간적도 없고 공직을 리용해 사적리익을 취한적도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렴결백》을 떠들었다. 지어는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로 몰아대며 처벌과 처벌이 아님다.

낮가죽이 폭발보다 더 두려운 리명박이만이 할수 있는 꼴불견이다.

하기에 남조선 정계와 사회 각계층은 리명박의 파렴치한 추태에 격분을 표시하며 《다스의 소유부리 (대통령) 재임시절 벌였던 부정부패행위까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생각하면 20년은 반성하기에 모자란 시간일것》이라며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나왔다. 국정문단의 싹을 억압하는 리명박에게 결말은 형을 내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검찰이 리명박에게 구형한 징역 20년형은 기소된 16가지 범죄혐의를 고려해볼 때 법적으로 적절하게 내

##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이 진행되었다.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화와 북남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불순한 대결소동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습적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이번 《쌍룡》훈련만 보아도 남조선군부가 오래전부터 공화국을 겨냥하여 년

은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들의우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는 북남관계가 개

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관문점선언리행이 아니라 군사적대결각본의 실행에 나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움직임이 계속 강행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충돌위험은 언젠가도 해소될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례의 지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한시바빠 매조되어야 할 정치오물들

최근에는 벌이 다르기마련이다.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린 구형이라고 하면서 역도역시 박근혜처럼 감옥구신이 될수밖에 없다고 평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6.13지방자치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미국에 쫓겨가있던 홍준표가 다시 정계에 나서려고 획책하고있다.

가관하게도 제 측근들에게서까지 버림과 배척을 받고 해외로 도망쳐나간지 불과 두달만에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너털대는것을 보면 확실히 홍준표는 권력욕에 환장한 나머지 수치를 느끼는 감각이능마져 상실한 정신병자임이 틀림없다.

제 처치도 모르고 다시 머리를 내미는 꼴을 보면 강한 정신치매증환자가 분명하다. 도착하는 길로 정계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구급격리시켜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진척의 변명이다.

가관은 이러한자가 인터넷매체를 통해 갈등의 《대

한민국》으로 들어간다. 지난 두달동안 독서와 총전,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 생각하며 정계복귀를 공공연히 떠들것이다.

실로 삶은 소도 양친대소 할 일이 아닐수 없다.

《표창》을 또 받으려고 이지랄인가 하는것이다.

나이 특십이 넘도록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권력야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공로로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득등정치감쌈배—《홍카멜레온》, 도적왕초—《홍돈표》, 대결광신자—《홍

수 없다.

이자의 《귀환》은 그대로 말기암환자에게서 배내버려왔던 중앙당여리가 다시 체내에로 기여들어가는것이나 같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마구 짓어대고 물어뜯는 정치망나니의 덕에 그렇지 않아도 망조가 든 보수세력들의 당내부가 더욱 제게비내 집안 꼴이 될것은 분명하다.

두구기 홍준표는 6.13지방자치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하여 당장 추책을 차고 감옥살이를 해야 할 범죄자이다.

초보적인 인격도 갖추지 못한 정치무능아, 인간오작푼인 홍준표는 정계복귀가 아니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고관죄의 값을 툭툭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최근에는 벌이 다르기마련이다.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린 구형이라고 하면서 역도역시 박근혜처럼 감옥구신이 될수밖에 없다고 평하고있다.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 《인간오작푼》이 광광을...

오죽했으면 홍준표의 구린 내나는 속내를 잘 알아 한배속인 보수야당들내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소가 웃을 일》, 《지내 빠른감이 난 다.》, 《국민을 위해서는 나쁜 일》이라고 할을 다투어 야유조롱해 왔었는가.

남에게서 비난과 조소를 받는것이 마치도 자기를 추어놀리는것으로 착각하여 《인간오작푼》이라는 더러운 칭호를 받았으면 되겠지 이제 또 어떤 구린내나

《표창》을 또 받으려고 이지랄인가 하는것이다.

나이 특십이 넘도록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권력야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공로로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득등정치감쌈배—《홍카멜레온》, 도적왕초—《홍돈표》, 대결광신자—《홍

수 없다.

이자의 《귀환》은 그대로 말기암환자에게서 배내버려왔던 중앙당여리가 다시 체내에로 기여들어가는것이나 같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마구 짓어대고 물어뜯는 정치망나니의 덕에 그렇지 않아도 망조가 든 보수세력들의 당내부가 더욱 제게비내 집안 꼴이 될것은 분명하다.

두구기 홍준표는 6.13지방자치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하여 당장 추책을 차고 감옥살이를 해야 할 범죄자이다.

초보적인 인격도 갖추지 못한 정치무능아, 인간오작푼인 홍준표는 정계복귀가 아니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고관죄의 값을 툭툭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최근에는 벌이 다르기마련이다.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린 구형이라고 하면서 역도역시 박근혜처럼 감옥구신이 될수밖에 없다고 평하고있다.

은 역도에게 징역 20년, 벌금 1 415만US\$, 추징금 1 037만 US\$를 청구하였다.

## 《싸드철회없는 〈한〉 반도평화는 가짜다, 《룡산미군기지를 반환하라》

—남조선 각계층 치렬한 투쟁 전개—

지난 8일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싸드》발사대추가배치 1년과 미국의 남조선강점 7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층 인민들이 치렬한 투쟁을 벌여왔다.

《소성리싸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싸드철회 국민총연맹》, 《싸드철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4월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정상회담이후 〈한〉 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이제 통일을 꿈꾸고있다. 하지만 강부성주에서 싸드를 빼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평화이다.》고 주장하면서 《싸드》배치를 단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서울 룡산미군기주

남조선에서 부패보수몇거리들이 《대권》야욕을 드러내며 머리를 또다시 쳐들고있어 진보민주세력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경제심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관과 함께 완전히 밀려났던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최근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 등에 나서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자유한국당》내 친박근혜파들과 접촉하면서 자과세력을 형성해보려고 꾀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내 《최대계파》를 거느리고있는 김무성은 각종 명목의 토론회들을 수시로 벌여놓고 《조선의원》들과 학계인물들을 끌어들이며 역을 벌리고있으며 《보수대통령》을 떠들면서 《당권》과 《대권》에 도전할 기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대표자리를 빼온 후 미국에 가있던

홍준표도 다시 돌아와 정계에 복귀할 호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류승민,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등도 저마다 보수를 대표할 《중심인물》로 자처해나서고있다.

나 이는 것처럼 이자들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에게

홍준표도 다시 돌아와 정계에 복귀할 호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류승민,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등도 저마다 보수를 대표할 《중심인물》로 자처해나서고있다.

나 이는처럼 이자들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에게

## 역사의 심판을 받고도 권력을 노린다

관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황교안이다. 《국회》에서 박근혜관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는 군부에 《전군경제체제강화》를 지지하고 《국가안보조정회의》를 벌여놓았는가 하면 《박근혜의 마지막막당부》, 《변함없는 정책기조》를 떠벌이면서 《싸드》배치, 립내교과서 《국정화》, 일관성없음문제 협의 등 민심의 백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날뛰었다.

박근혜관안 이후 《대통

관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황교안이다. 《국회》에서 박근혜관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는 군부에 《전군경제체제강화》를 지지하고 《국가안보조정회의》를 벌여놓았는가 하면 《박근혜의 마지막막당부》, 《변함없는 정책기조》를 떠벌이면서 《싸드》배치, 립내교과서 《국정화》, 일관성없음문제 협의 등 민심의 백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날뛰었다.

박근혜관안 이후 《대통

관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황교안이다. 《국회》에서 박근혜관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는 군부에 《전군경제체제강화》를 지지하고 《국가안보조정회의》를 벌여놓았는가 하면 《박근혜의 마지막막당부》, 《변함없는 정책기조》를 떠벌이면서 《싸드》배치, 립내교과서 《국정화》, 일관성없음문제 협의 등 민심의 백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날뛰었다.

박근혜관안 이후 《대통

관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황교안이다. 《국회》에서 박근혜관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는 군부에 《전군경제체제강화》를 지지하고 《국가안보조정회의》를 벌여놓았는가 하면 《박근혜의 마지막막당부》, 《변함없는 정책기조》를 떠벌이면서 《싸드》배치, 립내교과서 《국정화》, 일관성없음문제 협의 등 민심의 백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날뛰었다.

박근혜관안 이후 《대통